FX Market Daily

2025-07-03

전일동향

전일대비 2.80원 상승한 1,358.70원에 마감

2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대비 2.80원 상승한 1,358.70원에 마감했다.
이날 환율은 NDF 종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0.90원 하락한 1,355.00원에 개장했다. 오전장에서 환율은 달러 강세 및 국내증시 외인 매도세에 1,363.90원까지 상승했다. 다만, 네고 물량 유입에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며, 1,358.70원에 종가(15:30 기준)를 기록했다. 주간장중 변동 폭은 9.90원이었다.
한편,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-원 재정환율은 945.61원이다.

전일환율변동

구분	시가	고가	저가	종가	평균환율 (매매기준율)
달러	1355.00	1363.90	1354.00	1358.70	1359.40
엔화	945.03	949.21	942.15	945.42	-
유로화	1600.76	1608.18	1596.02	1602.52	-

* 시가/고가/저가/종가: 달러는 익일 06:00(美 서머타임 해제 시 익일 07:00) 기준, 엔화 및 유로화는 15:30 기준

F/X(달러-원) 스왑포인트

	1M	3M	6M	12M
보장환율(수출)	-2.28	-7.9	-15.3	-28.09
결제환율(수입)	-1.94	-6.55	-13.24	-24.61

*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,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

*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,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(https://www.ksure.or.kr/rh-fx/index.do) 확인

금일 전망

美 고용부진에...1,350원대 초반 중심 등락 전망

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(-2.50원)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(1,358.70) 대비 2.80원 하락한 1,353.4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.
금일 환율은 민간고용 둔화 등에 하락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. 미국 ADP 6월 민간고용은 전월비 3.3만명 감소하며 예상치(9.8만명)를 큰 폭으로 하회했다. 이는 2023년 3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 전환한 것이며, 금주 발표 예정인 비농업 고용도 예상치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. 한편 미국과 베트남은 무역협상을 타결했다고 발표했다. 미국-베트남 교역 조건 합의에 따른 위험선호심리 개선에 S&P500지수는 0.47% 상승한 6,227.42로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. 파운드화는 레이첼 리브스 영국 재무장관 교체 가능성 및 재정건전성 우려에 약세를 보였다. 달러화는 파운드 급락에 97pt를 회복하기도 하였으나, 미 고용 둔화에 따른 금리인하 기대감 확산에 상승폭을 반납하며 96.788pt로 마감했다. 금일 환율은 미 고용지표 부진 및 관세합의 등에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. 아울러 반도체와 조선 등의 수출실적 호조로 수출업체 네고 물량 유입 가능성이 농후하며, 이는 원화 강세의 재료로 소화될 것으로 판단된다.
다만, 1,350원대 초반에서 유입되는 결제수요 및 미국 노동부 고용지표 발표 대기 등은 하단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.

금일 달러/원 예상 범위

1348.60 ~ 1358.60 원

체크포인트

- ■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: -3277.73 억원
- ■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(NDF) :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2.80원↓
- ■ 美 다우지수 : 44484.42, -10.52p(-0.02%)
- ■ 전일 현물환 거래량(종합) : 105.59 억달러
- ■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: +9716 억원

※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